

2022. 11. 11 日書,

晉州邢氏의始祖는 諱顯이고 只今까지의 族譜에
고려태조(高麗太祖)때의 휘명(諱暉)이하 삼일세(11世)를
족보별록(族譜別錄)에 두고 중시조(中始祖)를 휘방(諱昉)
을 1世로 삼고 나왔으나 이번의 임오(壬午) 족보는 고려사(高麗
史)를 중심으로 고서(古書) 등에서 조상(祖上)의 행적(行蹟)
을 찾아내 휘명(諱暉)을 중시조(中始祖)로 삼아 계대(系代)
를 이어 왔다

※ 邢栢宇 씨계 榮廷翰

진주형씨(晉州邢氏) 시조(始祖)

진주형씨(晉州邢氏) 시조는 형옹(邢顒)이다. 중국 당(唐)나라 태종(太宗) 정관 8년인 고구려(高句麗) 영류왕(榮留王 17년, 서기 634년)의 요청(要請)에 의하여 8학사(八學士)의 한사람으로 고구려(高句麗)에 들어와 문학(文學)과 유교(儒敎)에 공(功)을 세우고 벼슬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 삼중대광(三重大匡) 보국(輔國: 나라일을)을 지냈다. 관향(貫鄉)을 남양(南陽: 뜻 후근)으로 사향(賜鄉)받았다.

형씨(邢氏)의 유래(由來)

서주(西周: BC1057년~ BC 771년) 무왕(武王)의 동생 휘(誨) 단(旦)의 건국호(建國號)는 주(周)이며 넷째 아들인 휘(誨) 정연(靖淵)을 형후(邢侯)에 봉(封)하였으니 형옹(邢顒)의 시조(始祖)이다.

관향(貫鄉)의 유래(由來)

경상남도 진주(晉州)는 백제(百濟)의 거열성(居烈城)인데 신라(新羅) 문무왕(文武王) 때 신라(新羅)의 영토가 되어 거열주(居烈州)라 하였다.

통일신라(統一新羅) 경덕왕(景德王) 16년(서기 757) 9주 5소경제(九州五小京制)의 실시와 함께 강주(康州)로 개칭한 뒤 청주(靑州)로 고쳤다.

고려초(高麗初)에 다시 강주(康州)로 환원하였고, 성종(成宗) 14년(서기 995)에 진주(晉州)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된 뒤,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와서는 진주목(晉州牧)으로서 서부 경남 일대의 요지였으며 그 후 누차의 변천을 거쳐 1949년에 진주시(晉州市)로 승격되었다.

창씨(創氏)의 유래(由來)

진주형씨(晉州邢氏)의 시조(始祖) 형옹(邢顒)은 당(唐)나라 태종(太宗) 때 사람으로, 관직(官職)이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으로 삼중대광(三重大匡)에 이르렀다. 그는 고구려(高句麗) 영류왕(榮留王)의 요청(要請)에 의하여 8학사(八學士)의 한 사람으로 서기 634년(申午) 때 우리 나라에 들어와 '당(唐)나라 문화(文化) 보급' '문학(文學)과 유교(儒敎)'에 공헌한

중시조(中始祖) 형명(邢暉)

한편 남양(南陽)의 관적(貫籍)을 하사(下賜)받았다.

그 후 13세는 방(昉)이 고려(高麗) 명종(明宗) 7년(서기 1177)때 문하시중(門下侍中) 대광보국(大匡輔國)을 지냈고, ○ 의 15세손 공미(公美)가 충렬왕(忠烈王) 6년(서기 1280) 문하시중(門下侍中)으로 도원수(都元帥)가 되어 왜구(倭寇)를 정벌(征伐)하는데 공(功)을 세우고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로 일등공신(一等功臣)에 책록되어 진양군(晉陽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추손들은 방(昉)을 일세조(一世祖)로 하고~~ 진주(晉州)를 본관(本貫)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계승(繼承)하고 있다.

진주형씨(晉州邢氏) 뺏지



☒ 뺏지설명 :

고구려 때에 팔학사(八學士)로 우리 나라에 입국한 형씨(邢氏). 고구려의 '匈'자로 고구려를 나타내고 그안에 팔학사는 '八'자로 표시하였으며 중앙에 '邢'자로 성을 새겨 놓았다.

서기 1998년 3월 1일

西隱 邢南表 作成



사진설명 (보면서)

우측은, 족보편찬위원회 부회장 邢時善
 중앙은 " 회장 邢南表
 좌측은 " 총무 邢鐘烈